



제108회기



총회사회봉사주일

목회 및 예배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사회봉사부



- 목 차 -

총회장 목회서신 총회 사회봉사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김의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p. 3
설교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교회 - (고린도전서 7:17, 29~31) -	천정명 목사 (오계교회)	p. 5
논문 및 자료 I 다중재난과 사회적 돌봄	정무성 교수 (송실대학교)	p. 11
논문 및 자료 II 다중위기와 한국교회의 지속가능성	홍창현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예향교회)	p. 40
참고자료 교단지 ‘한국기독교공보’의 ‘1인가구’ 관련 모음집	류재룡 목사 (유성구노인복지관) 손의성 교수 (배재대학교) 박민선 이사장 ((사)오픈도어)	p. 55

제108회기 사회봉사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김의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3월3일은 제63회 총회(1978년)에서 제정한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사회봉사 주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앙에 기초하여 시대변화와 상관 없이 고통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노년기에 진입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도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게 되어 고독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이고,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18.6%, 29세 이하 19.2%였고, 2023년에는 993만 5,600 세대에 달했으며 남자는 39세 이하(41.5%)의 비중이 높고, 여자는 60세 이상 고령층(46.2%)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연령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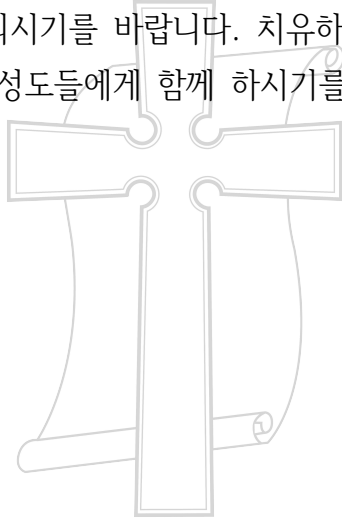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도 큰 위기였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돌아보기 보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외로움과 패배의식, 인간관계 단절,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지역 사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108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출15:26, 사53:4~5, 살전5:23)’입니다. 사회적 돌봄과 배려에서 소외된 1인 가구들이 느끼는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음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인 가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사역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1인 가구들로 이루어진 청년, 노년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식사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과 같은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의 1인 가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맞춤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독사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등, 교회가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서 섬김과 치유의 사역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사회봉사주일을 지키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다양한 돌봄 사역을 준비하여 실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와 69노회, 9,476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교회

- 고린도전서 7:17, 29~31 -

천정명 목사(오계교회)

첫말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혼밥족', '혼밥', '혼술문화', '혼밥러'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홀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문화는 혼자 손갈을 들어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다.”

통계청은 2023년 말에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입니다. 1인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 원인으로서는 이혼, 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젊은 세대의 비혼과 만혼, 일자리로 인한 대도시 청년 독립 가구의 증가 등입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음식점, 각종 제품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나홀로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신 남녀와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나 혼자 산다'는 예능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는 ‘2024년 1인가구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1인가구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관악구는 2023년 1인가구의 비율이 62.1%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관악구의 대표 가구가 되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2023년 말에 전국노회 사회봉사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주제는 “다중재난과 사회적 돌봄”이었습니다. 사회봉사부는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면서 전쟁과 각종 기후 재난과 양극화 현상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참사, 저출생과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지방소멸 위기 및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다중재난으로 정의했습니다. 1인가구를 다중 재난의 범주에 넣은 것은 조금은 의외였지만,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제108회기 총회 이후에 조직된 사회봉사부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이번 회기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로 ‘1인가구 문제’를 맨 먼저 손꼽았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월 말에 전국노회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끄럽게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긴급성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내의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싱글 미니스트리’(Single Ministry)를 소개하고 이를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도 호응도 크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만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싱글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싱글이 없는 게 아니라, 싱글이 없는 교회, 싱글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몸말

1. 말씀자리

고린도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문란한 성풍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걸쳐 ‘부부관계’, ‘미혼자들과 과부들의 독신과 혼인’, ‘기혼자들의 이혼’, ‘처녀(약혼자)들의 혼인’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금욕주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지 말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종말론적 시간을 말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는 손에 잡힐 듯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때’가 단축되어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것처럼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든 관계를 파기하고 독신으로 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독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항상 ‘그 때’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가질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맺는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는 관계입니다. 미리 이 말을 하면 슬프고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렇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곧 닥칠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한 말씀은 아내와 헤어지라거나 아내를 멀리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39절상)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부부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죽음도 넘어서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관계를 주님과 의 관계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최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한 것은 감정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막14:34)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눅19:41)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11:33-35)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런 슬픔과 기쁨의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감정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과 몸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때때’나 ‘세상 물건을 쓰는 것’도 앞에서 말한 두 사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서 성도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건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소유물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나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로애락이나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과 소유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31절하)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31절하, 새한글성경)

결국 모든 인간은 혼자 왔지만 혼자 돌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곧 단독자(싱글)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목회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일 천국에 안 계신다면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자와의 관계도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한시적인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을 뿐이고 모든 관계는 사라져 버립니다.

2. 우리자리

바울은 인간의 실상, 곧 실존을 직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및 명령입니다.

첫째,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7장에서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17, 20, 24)를 세 번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불신자 남편,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인, 처녀나 과부들은 모두 다른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인가구원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공동체는 이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부부, 4인가구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자격미달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은근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공동체 스스로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자신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교회 문턱을 높여놓고 선교의 폭을 바늘구멍만하게 작게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대(times)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유교적 문화와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1인가구

원인 싱글들은 교회 안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거나 출석조차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다가 이혼이나 혼기를 놓치면 청년부에 속할 수 없고 장년부에도 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싱글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모든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교회공동체 구성원은 그가 1인가구 즉 싱글이든지 돌싱(돌아온 싱글)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원도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더욱 당당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각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24절하, 새번역)라고 권면했습니다. 새한글성경에서는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1인가구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인가구원은 결코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의 최전선에서 최정예부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정예부대는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합니다. 자기 혼자뿐이라면 그는 국가를 위해서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몸을 사립니다. 그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교회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나 일꾼이 없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가지 사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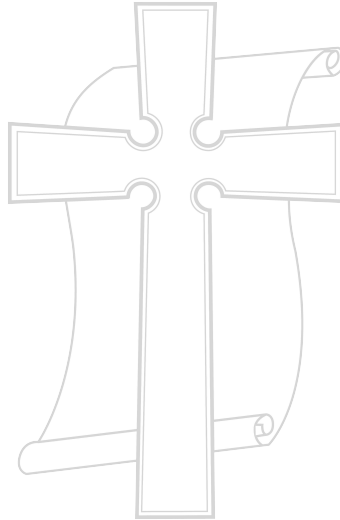
맡고 있고, 사역자들은 이에 따른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지쳐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는 하고 있지만 당장에라도 교회를 탈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혼한 젊은 세대는 맞벌이와 육아노동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금과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경제적 여유조차도 없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령화는 가속화 되고 있고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 사역과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1인가구원은 오히려 교회 사역과 봉사와 선교의 첨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이나 배우자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는 이들을 복음의 동역자와 동반자로 나서도록 잘 도와주고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바로 ‘싱글 미니스트리’입니다.

끝말

탁영철 목사가 쓴 『싱글의 파워』라는 책 소개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싱글 미니스트리가 잘 정책되어 있고, 교회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미국교회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교회도 1970년 후반에 성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싱글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이에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는 대다수 교회에서 싱글 사역이 주일학교나 청년사역처럼 주요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 안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침체 또는 쇠락하고 있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1인가구원인 싱글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교회 행사와 선교의 주축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역과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홀로 사는 어려움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지난 제107회기에는 총회와 사회봉사부와 전국교회는 산불과 전쟁과 기후위기 등의 다중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하는 다중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활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를 발굴하여 더 많이 알려서 모든 교회가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

편 사람이든지 각 사람이 처한 처지와 상황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과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특히 교회에 소외되고 있는 1인가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중흥기를 맞도록 합시다.



다중재난과 사회적 돌봄

정무성 교수(前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1. 다중재난과 취약계층

<다중재난과 사회적보호> 개념1 (ChatGPT)

-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refers to the integrated approach and strategies aimed at addressing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multiple disasters and emergencies while also considering their social well-being. This approach recognizes that disasters, whether natural or human-made, can have a profound impact on not only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on the social fabric of communities. Here are some key aspects of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 1. Comprehensive Planning:**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involves comprehensive disaster planning that takes into account various types of disasters that a region might be susceptible to. This includes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hurricanes, floods, and wildfires, as well as human-made disasters like industrial accidents, terrorist attacks, and pandemics.
 - 2. Community Resilience:** It focuses on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This involves not only preparing for disasters but also investing in the capacity of communities to withstand and recover from multiple shocks. This includes infrastructure resilience, economic resilience, and social cohe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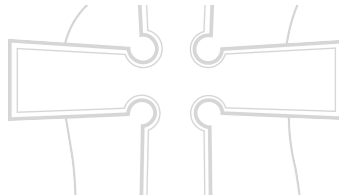
<다중재난과 사회적보호> 개념2 (ChatGPT)

3. Interagency Coordination: Effective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necessitates strong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mmunity groups. This ensures a unified response to different types of emergencies.

4. Social Services Integration: It includes the integration of social services into disaster planning and response. This means considering the needs of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isaster plans and ensuring that social services like healthcare, mental health support, and housing assistance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aftermath of disasters.

5. Psychosocial Support: Recogniz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disasters,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sychosocial support to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is may involve counseling, trauma support, and community healing initiatives.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accurate information are critical in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This includes early warning systems, public education on disaster preparedness, and clear communication during and after disasters.



<다중재난과 사회적보호> 개념3 (ChatGPT)

7. Resource Management: Managing resources efficiently and ensuring that there is a stockpile of necessary supplies (e.g., food, water, medical supplies) for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is an essential aspect.

8. Recovery and Rebuilding: The approach doesn't just focus on immediate response but also on long-term recovery and rebuilding. This includes housing reconstruction, economic recovery, and community development efforts.

9. Research and Adaptation: Continuous research and adap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are crucial. As new challenges and risks emerge, it's important to learn from past experiences and adjust plans and strategies accordingly.

- Multi-disaster and social care is a proactive approach that seeks to minimize the impact of disaster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promote resilience, and ensure that social well-being is a central consid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efforts. It emphasizes the interconnected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with the broader social context in which they occur.

재난의 법적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이란?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중재난의 시대

- 재난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바탕으로 재난 현상이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임
- 다만, 재난의 개념이 과거에는 주로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은 경제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개념을 더 이상 자연현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음
- 자연재난, 기술재난(technological disaster), 사회재난, 테러와 전쟁 등
-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피해규모의 대형화와 새로운 위협요인들이 결합하여 일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

다중재난의 내용

사회적 위험의 심화

- 빈곤, 질병, 노령, 실업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숙련의 저하 그리고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음
- 탈산업화, 4차산업 혁명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 하에 위험의 불확실성이 중요한 보건복지 환경의 속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양극화의 가속

- 198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 임금의 80%를 넘었지만, 2000년대에는 50%에 가까운 수준임
- 경제 민주화나 복지확장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부채 증가
-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심화

고령화의 가속

- 베이비부머의 고령세대 진입과 함께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1~2년 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65세 인구 비중이 2030년에 24.5%가 될 것이라고 추계됨(E-나라지표 2017)
- 고령세대는 복지수요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9

지난 여름 살인적인 더위



자연재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변화

지구 온난화로 변할 한반도의 2050년의 모습은

	연평균 기온 16.8도 (2016년 13.6도에서 3.2도 상승)		강수량 연평균 1100mm 내외(2011년 대비 15.6% 증가)
	폭염 연속 일수 20.3일 이상 (현 최고기록은 1943년 25일)		농업 사과 복숭아 재배지 줄고, 감귤 단감 재배지 증가
	폭염 사망자 수 250명 이상 (현 최고기록은 올해 27명)		어업 참조기, 꽁치 등 한류성 어종 사라짐
	열대야 일수 30일 이상 (현 최고기록은 1994년 17.7일)		해수면 27cm 상승. 부산 울산 등 해안지역 도시 침수 가능성



위기의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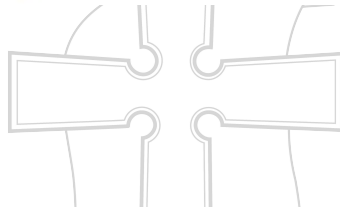
[도전과 위기]

- 저출산과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복지재정지출 급증
 - 세대간 갈등 증폭
- 경제, 산업 구조 변환
 - 성장잠재력 저하
 -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분배개선효과 약화
- 사회통합 약화
 - 중산층 감소
 - 비정규직 문제 심화
 - 가계부채 증가
- 사회적 신뢰 약화
 - 잇단 대형사고로 인한 불안감
 - 정부에 대한 불신
 - 지도층에 대한 반감

[기회요인]

- 나눔 활동 증가 등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
 - ※ 전문가의 72%, 일반국민의 60%가 재
정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삶의 질' 향상
을 선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복지확충, 공생발전, 약자에 대한
포용적 제도 등 사회통합 논의 활발

**사회통합 등 삶의 질 질적 측면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위기에 강한 민중성 기대**



다중재난과 취약계층

- 오늘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재난은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
난안전약자는 재난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은 높은 반면, 위험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은 떨어짐(장미혜 외, 2014)
- 우리사회는 재난위험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여전히 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 인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대응, 복
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체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망(safety net) 구축과 관리 매뉴얼 개발의 이슈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봉사부에서 '다중재난과 사회적보호' 주제로 정책협의
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 적절함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1)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구 복지국가 중심으로 논의되던
'커뮤니티케어(communitary care)'의 개념에 착안하여 출발
서구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입소자의 탈시설, 탈원화에 역사적 뿌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의료 욕구 증가와 급증하는 보건복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욱 주목
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의 지역 거주(Aging in place)를 강화해 가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토대

Community Care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1)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방화, 민간 분담(민영화, 시장화), 지역사회와 이웃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었으며, 복지 재정의 효율화 목표도 뚜렷하게 나타남



Community Care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1. 지역사회 통합돌봄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적 속성



-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은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신청, 제공과정이 각 개별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가진 당사자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은 각 서비스가 개별적 급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여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지방정부 중심 책임성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 당사자 개인과 서비스에 대한 일선 수급자격 및 내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의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통합돌봄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필요성

- ① 돌봄 문제의 보편화
- ② 시설 및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체계로 인한 사회적 입원 증가
- ③ 부족한 재가서비스로 돌봄 욕구 미충족과 가족돌봄 부담 증가
- ④ 분절적 서비스제공으로 사람 중심 통합적 케어 제공의 한계
- ⑤ 초고령화에 따른 케어지출(건강보험, 의료급여, 치매관리비용 등)로 인한
중장기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배경

노인의 대다수가 Aging in Place 희망

- 불충분한 재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연계 미흡에 의한 돌봄공백 일상화
(시설/병원 74만명 중 사회적 입원 약 6만명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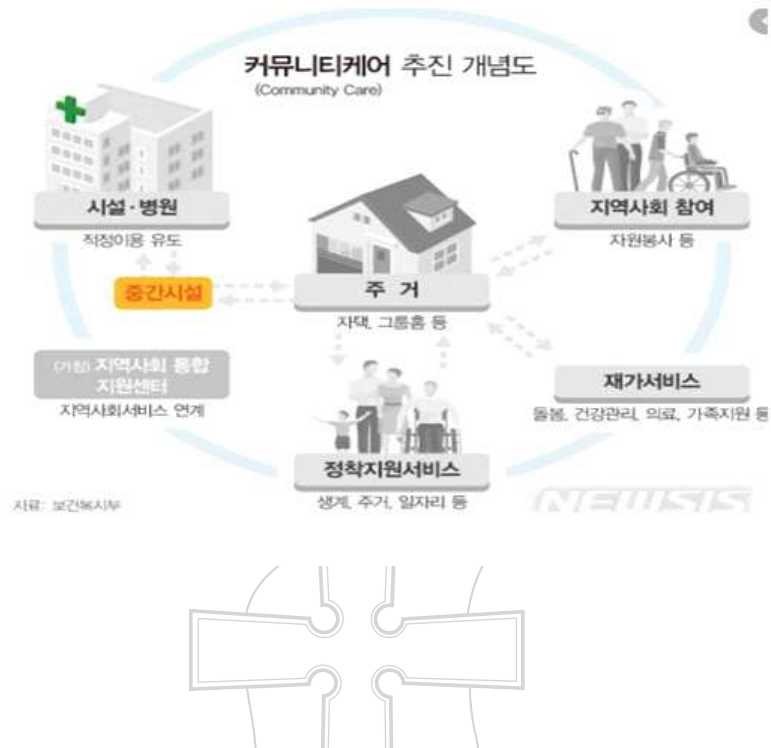
노인 중 58.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¹⁾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중
33.5%(2,021/6,035명)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²⁾



¹⁾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노인 총 10,087명 대상)
²⁾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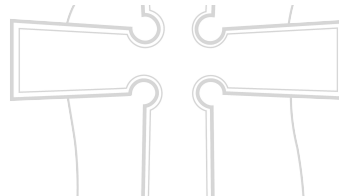
4차산업혁명과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의 **총균식(Guns, Germs, and Steel, 2005)**

오랜 전부터 사람들은 세균과의 싸움을 치루었는데, 유럽인들은 장티푸스, 홍역 등을 앓으며 면역력을 갖게 되었다. 면역은 먼저 획득한 민족이 강하여 지는 법이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인들은 세계 정복을 나서면서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새로운 균에 몰살되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균으로부터의 면역력은 유럽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다고 책은 주장한다. 실제로 총보다 세균 감염을 통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어느 시대 건 사회적 약자는 취약!

최근 겪은 코로나19의 상황은 21세기 세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사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혁명의 단계

- 1차 산업혁명 : 증기기관을 통한 동력 및 기계문명으로 산업화
- 2차 산업혁명 : 전기 및 내연기관 발명으로 공업의 산업화
- 3차 산업혁명 : ICT를 통한 인터넷 문명과 정보혁명 (스마트 폰과 네트워크)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5G통신, 자율주행차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견 : 3차 산업혁명의 연장? 또 다른 과정에 불과? 기존 발견된 것들의 연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오고 있다!
다중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도 AI로봇의 활용과 함께 할 수 있음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 노동력 감소
- 소비시장 위축
- 재정불균형
- 사회갈등의 증가
- 불평등 심화
- 사회 연대성 약화



→ ICT기술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



한국 고령사회의 사회위험과 과제

- ① 노인장수에 따른 노인의 건강, 소득, 여가 문제 증폭
- ② 노인장수에 따른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증가
- ③ 가족 기능의 약화와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
- ④ 노동력 수급 불균형: ' 30년까지는 부문별 인력부족 심화
2031~2040년 총량적인 인력부족 시작
→ 노동력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

과제: 1) 노인인구 중심의 인프라 구축 변화 정책 요구
2) 요보호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강화
3)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강화

스마트폰의 힘

- 아마존 제프베조스 : 데이터는 고객의 마음이다.
(빅데이터 활용)
- 스마트폰 : 선택권을 가진 고객의 힘을 상징
- 중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95%가 모바일거래
- 배달의 민족 앱 결제 금액
- 다보스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
- 1,2,3차 산업혁명 : 제조기술의 혁신이 시장의 혁명을 이끈 것
- 4차 산업혁명 : 스마트폰의 자발적 소비가 제조업을 이끈다.
- BTS의 유튜브 성공과 팬덤의 소비혁명
- BTS 뷔 인스타 팔로워 5100만 & 6시간 1000만 '좋아요'



<중국 노숙인 구걸: 스마트폰 전자화폐 >

One More Thing: Vision Pro!

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



MR(Mixed Reality-혼합현실):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친 증강현실(AR)을 확장한 개념
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상호
작용을 하도록 돕는 기술

6월5일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연례 세
계 개발자 회의(WWDC)를 열고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2014년
웨어러블 기기의 시작을 알린 '애플 워치' 공개 이후 9년 만의 신제품이다. 애플 기술의 집약체인 이 헤드셋만 있다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디서든지 일하고,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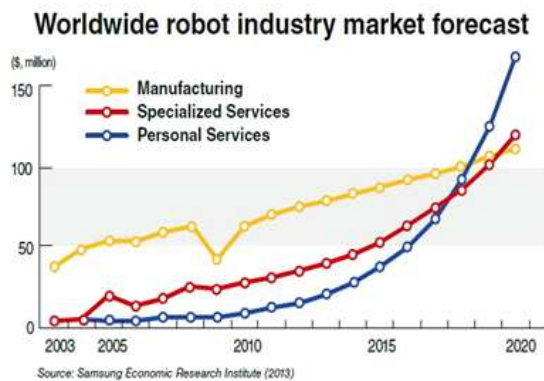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이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에서 사회복지사 같은 업무는 비정형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대체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본질적 업무?>

- 공통적인 프로세스는 접수(Intake) → 사정(Assessment) → 계획(Plan) → 실행(Do) → 모니터링 · 평가 · 재사정 · 조정 → 변경된 계획의 수립과 실행 또는 종결(End)이라는 일련의 과정: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런 연속적 프로세스를 모두 사람에게 의존
-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 사정과 평가는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정도구나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는 역시 사람의 몫, 즉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영역

*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Social Robots의 활용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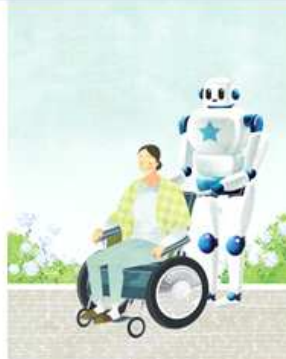


KAIST Motion Expressive Robot (Kamero)

Social Robots



영어 회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ICT 기기를 활용한 노인돌봄 하우스



치매 예방 및 치료용 VR과 로봇



(출처: “치료제·AI 진단·돌봄 로봇까지, 치매 극복 고지가 보인다” (조선일보, 2023.5.28))

3. 재난관리와 사회적 돌봄 과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의 정의

- 각종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광의: 재해대책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재해의 예방·예지·경보·긴급사태대처·응급복구·개선이라는 각 단계를 포함하는 것
 - 협의: 재해발생 후 관련 기관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직의 관리전략
-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는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등 네 가지 진행과정을 의미
 - 완화단계: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재난 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
 - 준비계획단계: 재난발생시 재난 대응을 위한 운영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활동
 - 대응단계: 부차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
 - 복구단계: 재난지역을 재난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관리이란?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와 회복탄력성(resilience)

-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음.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혼란,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적응, 회복 능력이라는 공통적 의미를 가짐
- 주로 지역사회(communitiy)의 행태적 대응, 제도, 경제 등을 다루면서 발전하였으며, 특히 재난관리에 회복탄력성 개념이 적용되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Klein et al., 2003)
-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회복과 성장을 의미하는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이라 명명하고,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처하고 적응하여 이로 인해 성장하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음(Rutter, 1985; Olsson, et. al., 2003; Hong, 2006; Shin, et. al., 2009)
- 이처럼 회복탄력성은 환경, 개인자원 등 적응되는 범주에서 차이를 갖지만 혼란,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적응, 회복 능력이라는 공통적 의미를 가짐

▶ 회복탄력성은 안정보다 적응(adaptation)의 개념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임

재난환경(예: 고령자)

주거 환경에 따른 영향

- 거주지역의 생활 환경이 고령 친화적 인지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의 활력이 증진 또는 저하 될 수 있음
⇒ 주된 생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반면, 농어촌에서는 경제활동과 경로당 이용 중심의 여가 활동을 참여하고 있음

외출 및 교통수단

-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가장 많고, 자가용, 지하철 순의 선호도를 보임
- 외출시 불편한 점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는 문제, 버스(전철) 타고 오르내리기 등의 상황을 불편한 점으로 꼽음
- 노인은 시력 및 청력의 저하, 팔다리 반응속도의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움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 노인의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0.6%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함
- 노인의 범죄피해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재산범죄 피해가 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폭력 및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이 각각 0.1%인 것으로 나타남

37

재난관리: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규정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생활인이 노인 및 장애인·영유아 등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시설, 생활인 스스로 소방활동(피난 및 대피활동 등)이 불가능한 시설, 생활인이 치매 및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근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는 별도의 화재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4조의 5-6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 5에 재난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 6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음

<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구분	재난영역	규정내용	작성자	근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	재난관리 체계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재난안전법』 제34조의 5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재난대응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재난안전법』 제34조의 6

39

시설내 재난관리 매뉴얼(예: 요양병원)

<그림1> 화재발생 대응체계



<그림2> 환자 후송방법



40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불충분성

• 문제점

- 돌봄의 충분성 부족
- 이동지원의 어려움
- 서비스 정보체계의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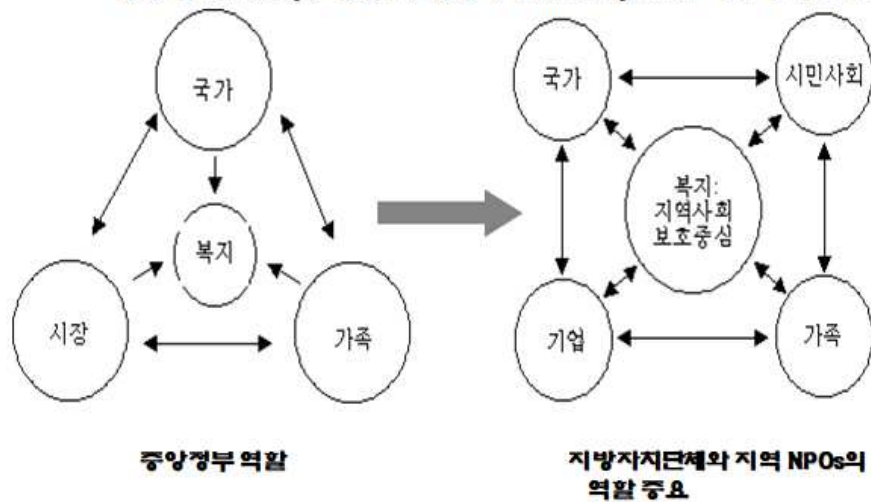
• 과제

- 지역내 사회적돌봄 안전망 구축
- 서비스의 통합성,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마련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한국의 가치가 반영된 지역사회돌봄:

공동체(Community), 가족, 노인공경 → Community Care: 지역의 역할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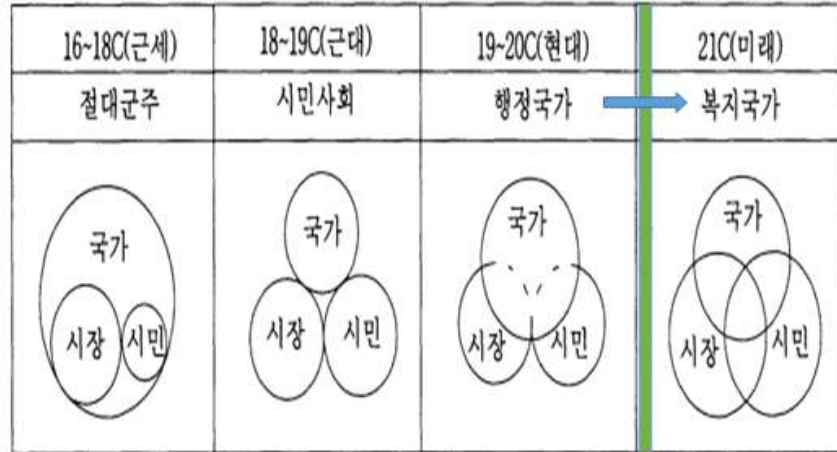
한국의 Community Care 방향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케어를 넘어,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 케어 구축으로 확장 필요
-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구축은 단순히 인프라와 제도 도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 NPOs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함

민·관 협력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

- ◆ 공공복지정책 및 제도와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재정 누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편임
-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전달체계의 확충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공공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주민의 다양성, 전문성, 탄력성, 접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 ◆ 시민사회의 참여 및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전달체계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지역사회 단위에 ‘돌봄공동체’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 및 민·민 자원개발, 연계, 조정을 수행하도록 함

거꾸로 가는 21C 복지국가 협치?



신정부 사회서비스복지의 우려

- 사회서비스에서는 수혜자가 정보수집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이용자(user, consumer, customer)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지는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
-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낮거나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나 클라이언트를 기피하는 크림잉(cream skimming)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 서비스 계층 간의 차별도 발생할 수 있음. 소외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
- 기존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 사회복지조직의 위축 문제

(1)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대전환 필요

Shifting
from “doing good”
to **“creating impact for a sustainable society” (together with other stakeholders)**

지속가능사회를 위해

- 인류의 보편적 문제
- 지구 환경문제
- 경제·사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협력적 노력 필요

-47

(2)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의 혁신

사회서비스의 법제적 정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고...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 (1)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명시
- (2) 사회서비스는 복지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예: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목표 등)
- (3) 사회서비스의 생산, 전달,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산업적 구성요소를 정교하게 갖추어야 함.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생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전달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사회서비스 기관의 도덕적 해이, 종사인력의 역량, 서비스 품질 등)
- (4)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실태 파악이 급선무이며,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역량강화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3)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 (1) 윤석열정부는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요양-돌봄 연계 커뮤니티케어(국정과제 45) 및 사회서비스원을 기반으로 하는 범부처-민관협업 사회서비스 공급을 천명
- (2)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디자인과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서비스 공급 혁신에 관한 계획이 현재의 체계에 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의 기능과 역할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 (4) 사회서비스 신규 공급주체의 진입장벽 해소노력과 함께 기존 민간(법인단체 등)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함

(4) 사회적경제 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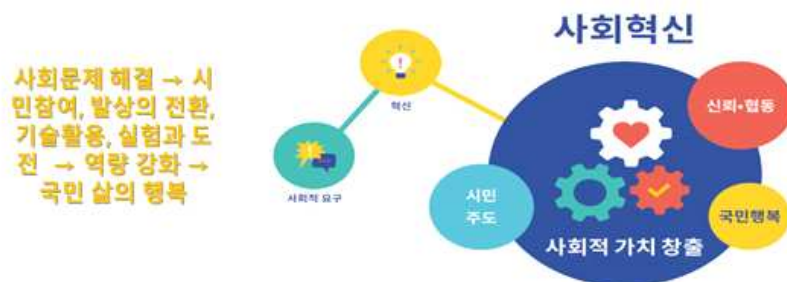
(5)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혁신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 가치 개념

-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 연대, 책임 배려, 공정성, 신뢰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치이면서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정부가 강요해서 얻어질 수 없는 가치들을 포괄



51

(6) 기업 ESG의 'S' 요소와 연계

- 기업의 온전한 ESG경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의 역할 확대 필요



52

(7) Collective Impacts를 위한 협업

1. Outcomes 시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관심 고조: United Way of America의 노력을 통해 로직모델(Logic Model)확산
2. Capacity Building 시대: 21세기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기존의 논리모델(logic model)에서 강조한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 외에 외부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 강조
3. 현재는 Collaboration 시대: 2020대를 맞아 collective impacts가 강조되면서 관련 조직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 부각

Modern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ChatGPT)

Modern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have evolved to address the complex and dynamic challenges faced by communities in today's rapidly changing world. These models focus on empowering community members, promoting social justice, and addressing variou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Here are some modern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

1.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 ABCD emphasizes identifying and mobilizing the existing strengths and assets within a community, including its people, organizations, and resources.
- It encourages community members to take an active role in addressing their own challenges, fostering a sense of ownership and self-reliance.

2.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 CBPR involve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that engage community members,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identifying community issues, designing research, and implementing solutions.
- The model ensures that research benefits the community and is rooted in local knowledge and priorities.

3. Collective Impact:

- The Collective Impact model brings together multiple organiza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community stakeholders to work collaboratively on complex issues.
- It emphasizes shared goals, mutual accountability, and ongoing communication to create a coordinated and comprehensive response to community challenges.

4. Place-Based Initiatives:

- Place-based initiatives focus on specific geographic areas or neighborhoods to address concentrated challenges such as poverty, education, or housing.
- They often involve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nonprofits, and community members to create customized solutions for the target area.

5.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 These models leverage market-based strategies to address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Social enterprises generate revenue through business activities while simultaneously achieving a social mission.
- Social entrepreneurship encourages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in community development efforts.

6. Restorative Justice and Community Healing:

- Restorative justice models focus on repairing harm, rebuilding relationships, and reintegrating offenders into the community through dialogue and reconciliation.
- These models aim to reduce recidivism and foster healing within communities affected by crime.

7. Trauma-Informed Community Organizing:

- This model recognizes the pervasive impact of trauma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 It incorporates trauma-informed practices into community organizing efforts to create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s for healing and resilience.

8. Digital and Online Community Organizing:

- In the digital age, online platforms and social media play a crucial role in community organizing, enabling activists to connect, mobilize, and advocate for change.
- These models leverage technology to build and engage online communities, often transcending geographic boundaries.

9. Community Resil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 These models focus on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to withstand and recover from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 They involve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nd community engagement in emergency response planning.

10. Intersectional Community Organizing:

- Intersectional approaches recognize that people's identities and experiences are shaped by various intersecting factors such as race, gender, sexu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 These models address multiple dimensions of oppression and inequality to create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communities.

Modern community organization models are flexible, adaptable, and responsive to the unique needs and contexts of the communities they serve. They prioritize community involvement, collaboration, and innovative strategies to create lasting positive change

다중위기와 한국교회의 지속가능성

홍창현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예향교회)

『제108회기 총회 사회봉사부 정책협의회』



다중 위기의 시대, 한국 교회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한국 교회를 위한 ESG 목회

『제108회기 총회 사회봉사부 정책협의회』

강의순서

1

다중 위기의 시대

2

다중 위기 시대 속 한국 교회

3

한국 교회의 지속가능성 목회 모델: ESG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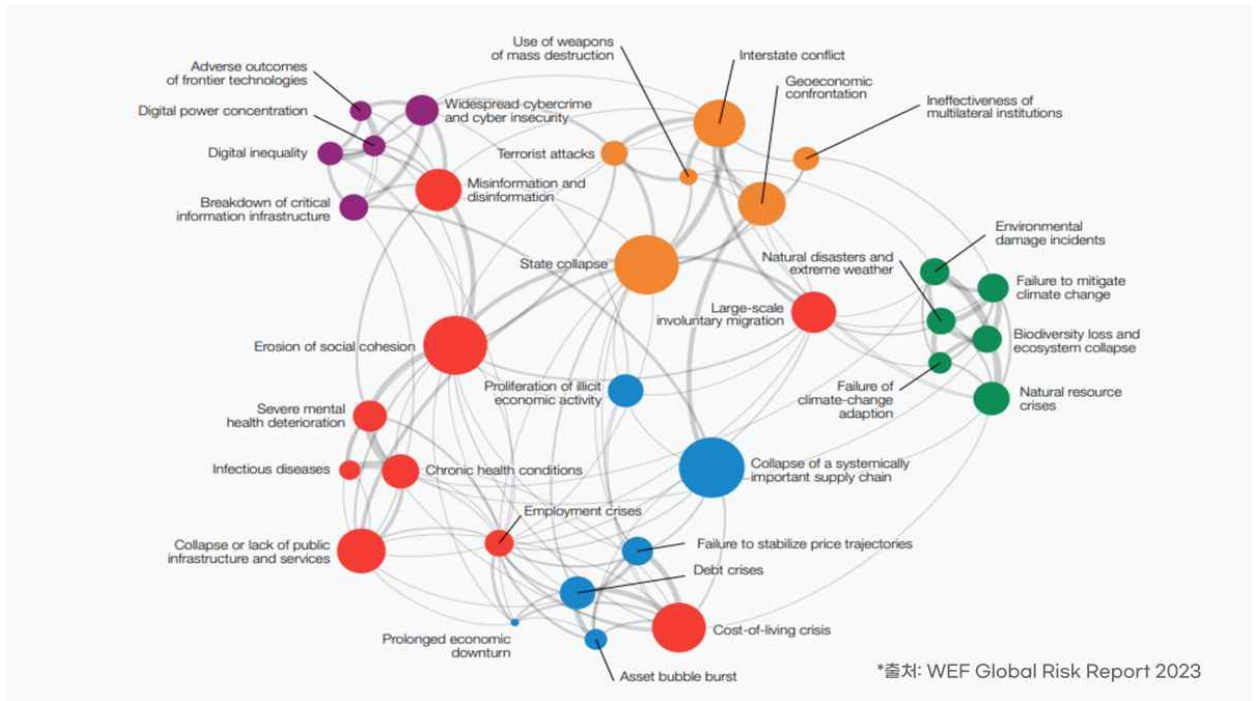
1. 다중 위기의 시대

-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Report 2023
- 현재부터 2년 이내 발생할 단기 위험 요소와 향후 10년 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위험 이슈 등 총 32개의 위험 요소 소개
- 동시다발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다중복합 위기(poly-crisis)*’ 시대를 열어나갈 것으로 전망
- 복합적 위기 상황에 맞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향후 2년간 인류를 위협할 단기 리스크 〉				〈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크 〉			
1	생활비 위기	1	기후변화 완화 실패				
2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2	기후변화 적응 실패				
3	지정학적 대립	3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	기후변화 완화 실패	4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5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5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사태				
6	대규모 환경피해	6	천연자원 위기				
7	기후변화 적응 실패	7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불안 확산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불안 확산				
9	천연자원 위기	9	지정학적 대립				
10	대규모 비자발적 난민사태	10	대규모 환경피해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출처: 과학기술정책센터(KISTEP) 브리프 58



한국 교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3가지 다중 위기



기후 위기

-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적응 실패
- 천연자원 고갈에 의한 위기



경제 위기

- 미중 갈등과 전쟁 등에 의한 세계 경제 악화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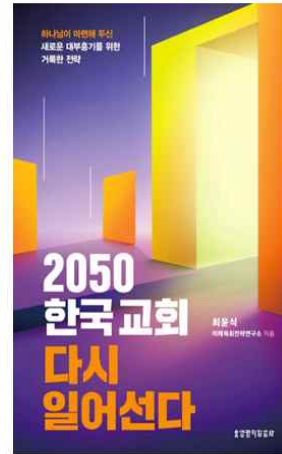


소통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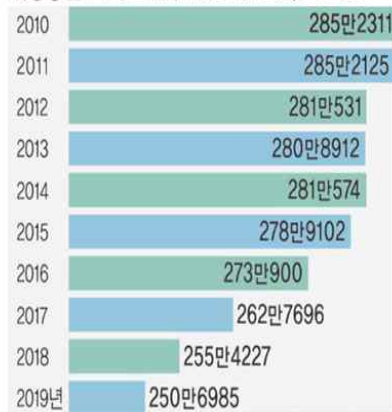
-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 통합의 위기
- 불평등 강화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갈등 고조

2. 다중 위기의 시대 속 한국 교회

-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
- 이대로 가면 2050년 한국은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된다.
- 가나안 성도의 증가(SBNR)
- 기독교인 수 감소
- 내부적, 외부적 위기 요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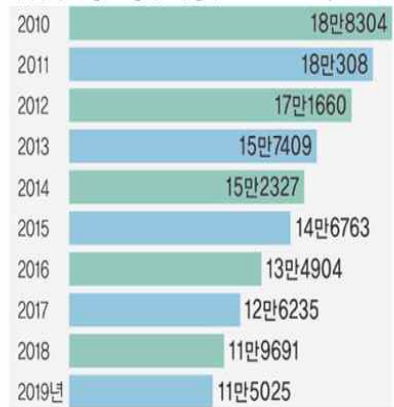


예장통합 전체 교인수 (매년 말일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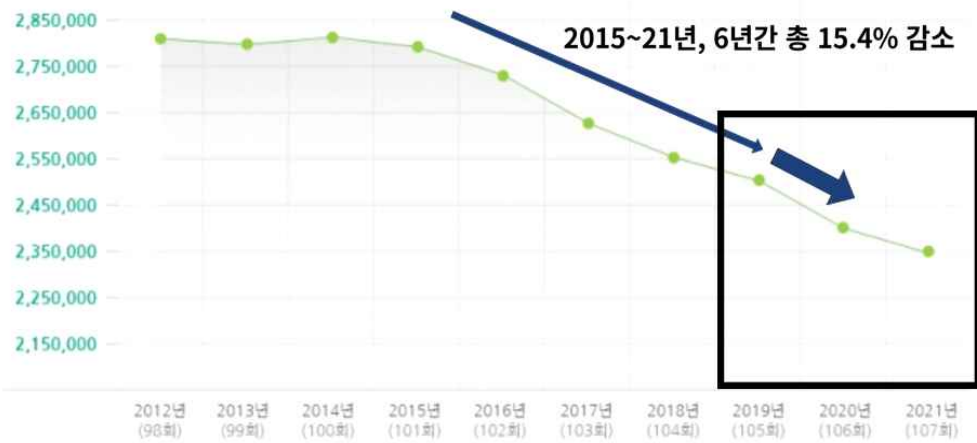
(자료: 예장통합 통계위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수 (매년 말일 기준, 단위: 명)



(자료: 예장통합 통계위원회)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 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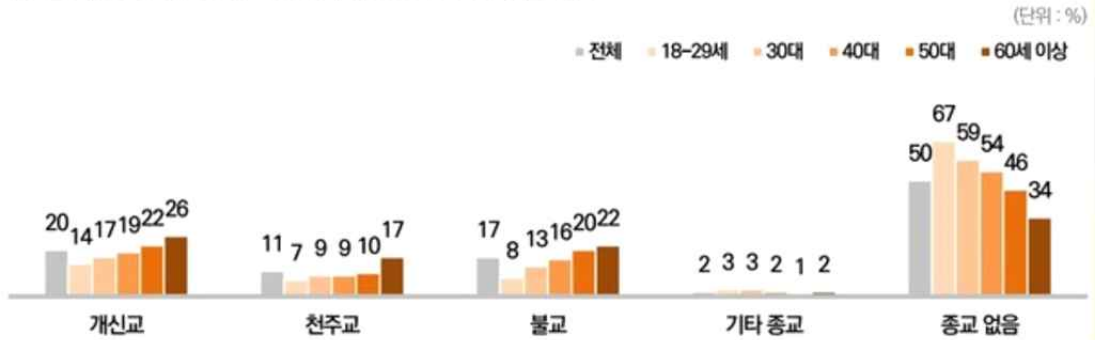
탈 종교 현상(2021년)



(주)한국리서치 '종교지표-2021년: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조사

청년들의 탈 종교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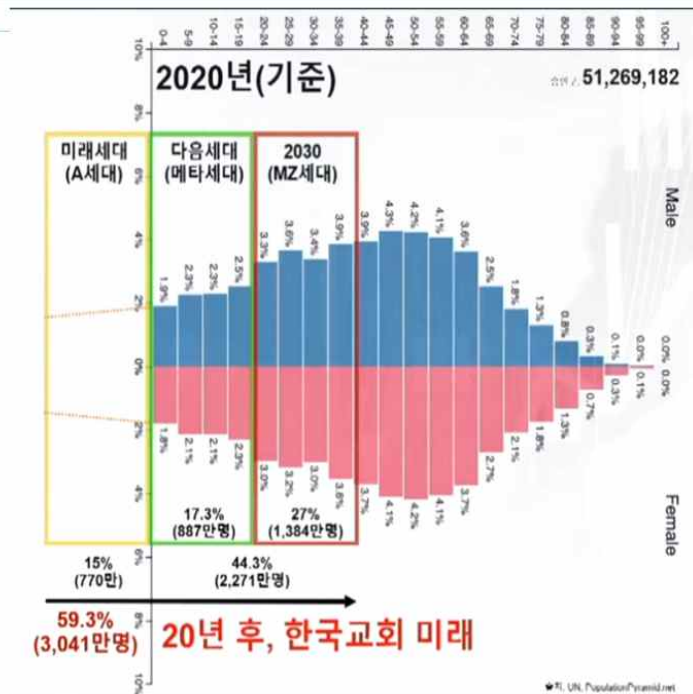
18-29세 중 67%, 60세 이상에서는 34%가 '믿는 종교 없다'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1년 전 개신교, 불교 신자였던 사람 중 12%는 '현재 믿는 종교 없음'

(단위 :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례수 (명)	① 종교 변화 없음	② 1년 전에는 믿는 종교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③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④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름	종교 변화 있음 (②+③+④)	계
전체	(1,000)	91	6	2	1	9	100
연령							
18-29세	(176)	87	10	2	1	13	100
30대	(152)	88	7	3	3	12	100
40대	(185)	88	8	4	1	12	100
50대	(194)	91	6	2	1	9	100
60세 이상	(293)	96	4	0	0	4	100
1년 전 종교							
개신교	(207)	87	12	-	1	13	100
천주교	(130)	90	8	-	2	10	100
불교	(191)	86	12	-	2	14	100
기타 종교	(27)	69	19	-	11	31	100
무교	(445)	96	-	4	-	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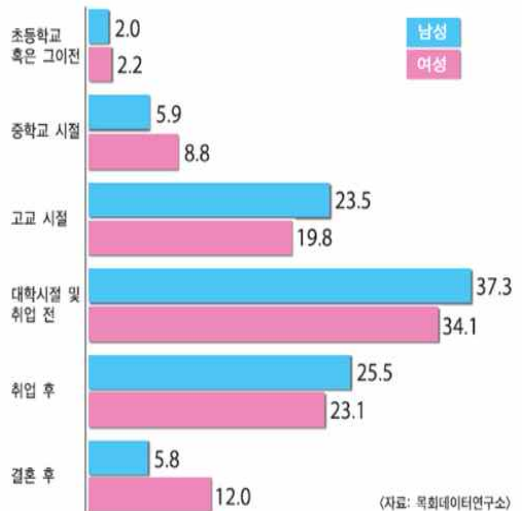
“청년들의 **인생 고민에 적절하게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공동체”

“교회를 **‘재미없고 규율 많은 집단’**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후 환경 문제, 사회적 정의 등 MZ세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이끌어 가는 공동체도 많다”고 역설했다.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성경적 해안을 갖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교회가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힙한 공동체’로서의 길을 내는 방법”

출처: 국민일보 더미션 “그 많은 교회 오빠 다 어디 갔나요” (22.1.10)

‘가나안 성도’의 교회 불출석 시기(단위: %)



"나는 열다섯 살에
마침내 기독교를 떠났다."

"이 세상에서 신은 없고
비이성적 믿음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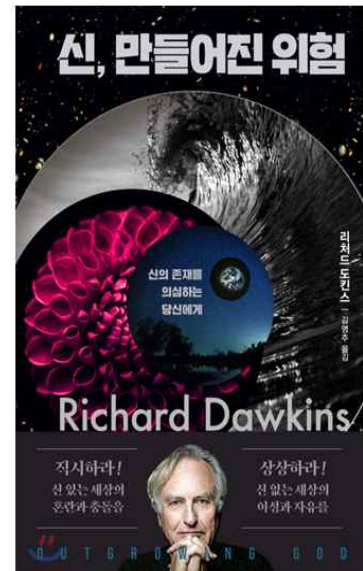
중학생의 교회 이탈



20대 대학청년 교회 이탈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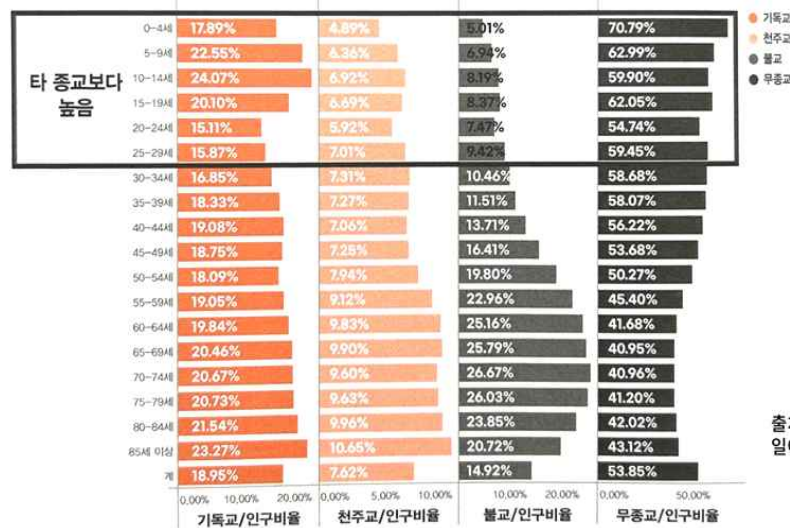


3040 세대 신앙 저하



| 2015년 기준, 연령별 각 종교 인구 비율 비교 |

[5세별_종교_비율] 통계청 2015년 인구총조사



출처: 2015 한국교회 다시
읽어선다, 86쪽.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라!

토요타 리콜 사태(2010년)



다중 위기 시대의 교회, 위기를 기회로

-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중 위기의 3가지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선제적 노력 필요
- 성경에서 해법 기준을 발견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읽어 복음을 전하는 노력 필요
- 개교회의 노력을 넘어 교단적 노력 필요



위기를 파악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3가지 핵심 다중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소통 위기

교회의 시대적 응답

생태목회(공생)

마을목회(공동선)

소통목회(공정)

3. 한국 교회의 지속가능성 목회 모델: ESG 목회



ESG 개념

- 2004년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과 20여 개의 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 ESG가 등장했다.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정의와 평등과 같은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방침이 바로 ESG 개념

3가지 다중 위기와 ESG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소통 위기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ESG 목회 개념

- ESG 목회는 교회 중심적 선교를 넘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 ESG 목회는 창조세계의 회복(공생, E), 공동선의 추구(공공, S), 투명성과 공정성(공정, G)의 '거룩한 공교회'에 신학적 뿌리
- ESG 목회는 칼뱅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따라 교회됨에 공공성을 회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를 추구



ESG 목회의 성서적 배경

1) 교회와 환경

- 지속가능한 교회, 지구생명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이 있다(창 1:31)
- 인간은 단지 돌봄의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창 2:15; 롬 8:19) 청지기적 소명에 근거
-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심으로(엡 2:14~16)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다.
- 교회는 만물 안에 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엡 1:23)



2) 교회와 사회

-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창 1:26~28)에서부터 출발
- 초대교회는 섬김의 공동체(행 2:44~45)
-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은 교회가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함



3) 교회와 지배구조

- 교회는 평등하고 합리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적인 정체성을 지닌 조직
- 천부장, 백부장 제도 (출 18:13~18; 24~26)
- 초대교회 일곱집사 (행 6장)



ESG 목회의 신학적 배경: 거룩한 공교회



1) 환경(E):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목회

- ESG 목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따라 인간중심적 선교를 지양하고, 생명망으로 얹혀있는 모든 지구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생태목회'를 지향한다.
- 교회는 기후위기 문제로 나타나는 피조물의 탄식을 그리스도의 신음으로 인식하며 선교적 관점에서 생태목회를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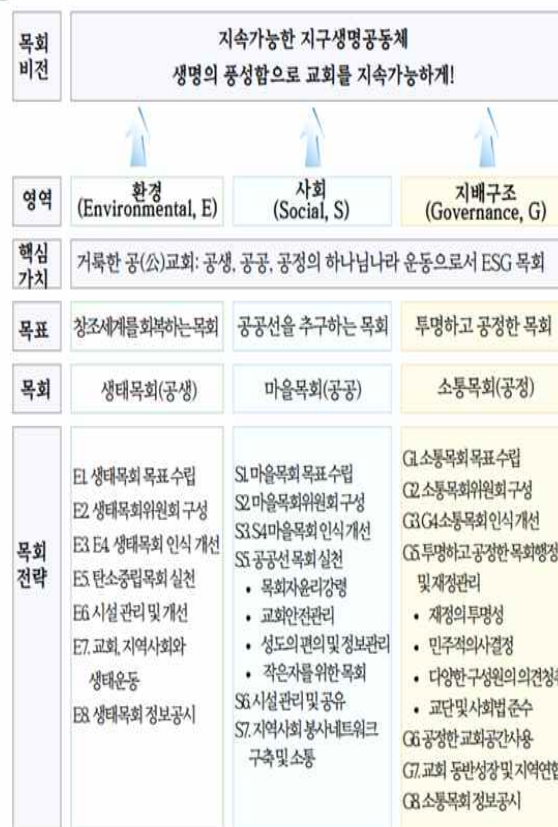
2) 사회(S):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회

- 교회가 부름 받은 선교 현장이 개인, 교회 차원의 전도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마을)와 지구촌 전체임을 기억
- 교회는 지역사회의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그들과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다.
- 교회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지구촌의 거룩한 조직으로서 공공선을 추구하여 사회의 성숙,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한다.



3) 지배구조(G): 투명하고 공정한 목회

-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또 역사의 주권자로서 장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
- ‘공공’이란 용어는 하나님 나라와 사역에 가장 넓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개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역사와 창조세계의 변화를 목적
- ‘공동(common)’ 혹은 ‘공동성’이란 말의 의미는 소통(communication)이란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의 ‘계시’란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



교단지 '한국기독교공보'의 '1인가구' 기사

'나홀로 인구' 교회도 대비를

[교계] 서울Y 제1회 미래사회포럼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5년 12월 02일(수) 10:50



▲ 전상인 교수의 미래사회 포럼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서울YWCA회원들.

대표적인 선진국형 트렌드인 1~2인 가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 홀로' 세상을 헤쳐가는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칭 칠포세대라 불리는 싱글족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은 판매순위 상위의 공신을 세우고, 혼자 한끼를 해결할 수 있게 소량 포장된 가정간편식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한민국도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보다 중시되고, 표준화 보편화 집단화 경향이 사라지는 '나홀로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서울YWCA(회장:조종남)은 지난 11월 2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제1회 서울YWCA 미래사회 포럼을 열고 NGO단체와 교회가 대비할 미래 인구 유형을 전망했다. 강사로 나선 전상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나 홀로 사회의 도래와 도전'을 주제로 "2035년이 되면 1~2인 가구가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미혼을 증가, 이혼율 증가, 딥크족과 같이 출산 기피 현상, 고령화를 꼽았다.

전상인 교수는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빨라서 핵가족을 넘어 '전자가족(핵가족이 더 분화된 형태)'시대가 도래하면 늘 따뜻하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의 집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독신을 원치않음에도 가난한 독신의 삶을 사는 칠포세대, 무연사회(無緣社會)화로 인해 사람들간의 연대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YWCA 조종남 회장은 "싱글사회, 무연사회로 인해 점점 고립되는 사람들을 NGO단체와 교회가 어떻게 품을 것인지가 당면과제"라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멘토멘티 연결, 동아리 활성화, 복지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YWCA는 여성의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고령화, 기후변화, 사회혁신 등을 주제로 매년 미래사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11) 대가족 줄고 1인 가구 등 새로운 가족 형태 증가 추세

[통계로 읽는 세상]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발표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6년 05월 17일(화) 15: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80년대 산업화로 급증 추세를 보였던 핵가족(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과 미혼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형태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분석한 이 자료는 1980년에 핵가족은 전체 가구의 68.3%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 68.0%로 줄어들고 2000년(68.4%)을 거쳐 2010년에 61.6%로 급감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제가(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도 1980년에 10.4%에서 9.2%(1990년), 6.7%(2000년)으로 감소하고 2010년에 4.7%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의 공백은 1인가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구형태가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타가구의 형태는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21.3%, 22.8%, 24.7%에 이어 2010년에는 기타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33.0%에 이르고 있다.

가족의 형태를 좀더 세분한 결과는 2010년 전체 가구에서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15.4%,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37.0%, 한부모(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9.2%, 부부와 양(편)친 즉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0.9%,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즉 대가족 형태는 3.8%에 해당한다.

조손가구는 0.7%로 적은 비중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는 1980년 9.8%에서 10년 단위로 8.4%, 5.7%, 3.8%로 급감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가구는 2010년에 38만 6977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2%에 차지하고 있다.

[박만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교회의 대안 시급

[교계] 1인가족, 노인인구, 국내거주 외국인 증가 현상 뚜렷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09월 10일(토) 03:41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520만 3000명으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도 이러한 새로운 가구형태에 맞는 목회적 대응과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7.2%로 2010년 23.9%보다 3.3%p 증가했으며, 이러한 1인 가구 비율은 도시보다 오히려 읍, 면 지역의 비율이 29.8%로 동지역(26.6%)보다 3.1%p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도시뿐 아니라 시골 교회에서도 바뀐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를 연령계층별로 분류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거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식되던 30대나 18.3%(1위), 20대가 17.0%(3위)로 나타나 이제 교회가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맞는 사역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이 17.5%로 두번째로 높은 점은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역에 있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로 드러난 1인 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정재영 교수(실천신대)는 "1인 가구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고립 및 간섭과 통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의 신앙 전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가나안 성도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교회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형태에 너무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해체된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교회에 나오기 불편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혼자 사는 이들이 교회에서 마저 익명성 속에 외파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의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자신들의 틀에 끼워맞춰서는 안되며 젊은이들의 취향을 파악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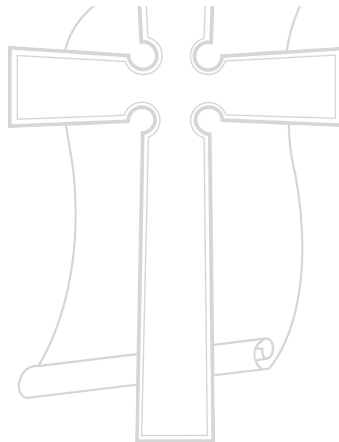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이 2010년 15.3%에서 17.5%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결과에 대해 강채은 목사(한국노인학교연합회 사무총장)는 "현재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이 2위지만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단독세대이고, 앞으로 50~60세대 1인 가구가 계속 유입되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고령화 문제에 한국교회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총회적인 정책과 교회의 연구와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노인으로 진입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재정과 사회적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라 기존 노인들과는 구별된다"며, "새로운 노인세대가 유입되는 만큼 식사대접하고 레크레이션하는 정도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

양한 욕구에 맞는 노인목회 프로그램 개발에 한국교회가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주택인구총조사에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봐야할 또 다른 대목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136만 명으로 5년 전보다 41%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 숫자의 급속한 증가는 선교적 측면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에 한국교회가 선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선교를 지리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19세기의 낡은 선교개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한국일 교수(장신대 선교학)는 지적한다. 한 교수는 "한국교회는 해외선교에 많은 투자를 해 이슬람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정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해외의 선교의 자세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사실상 이주민이 교회에서 견디기 힘들게 차별화 하고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만 선교의 열매를 더욱 맺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종교별 인구통계는 올해 12월 이후 집계되어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자, "생활 여건 점점 좋아진다"

[통계로 읽는 세상] 통계청, 고령자 통계 ①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6년 10월 04일(화) 13:55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고령자(65세 이상)를 부양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2015년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가구로 이 중에 32, 9%는 고령자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가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은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는 확인하고 있다. 고령자의 50.3%가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 지난해(29.0%)보다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빠졌다고 느낀 정도도 7.8%로 지난해(22.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은 결혼에 대한 전통관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결혼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77.6%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2년 82.9%, 2010년 83.6% 등과 비교할 때 결혼의 필요성이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도, 안해도 된다'는 응답자 또한 2014년에 18.8%가 응답하고 있어 2012년 14.8%, 2010년 13.1% 등과 비교할 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견해에서도 '해서는 안된다'가 2010년부터 2년 간격으로 볼 때 80.9%, 73.4%, 68.9%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인 응답자도 2014년 조사에서 7.7%(2012년 5.6%, 2010년 3.9%)에 이르고 있다.

한편 결혼과 이혼에 대해 남자 보다는 여자가 점점더 전통 관습에서 벗어난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 없는 사회 (1)가정의 위기 '해체'

[특집]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7년 06월 02일(금) 09:59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가정', 그리고 '가구'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용어로 이들 단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家族)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하며 대개 한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구(食口)로도 표현하며 함께 밥을 먹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적 의미로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을 말한다.

'가정'(家庭)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간적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가구'(家口)는 비교적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며,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용어를 볼 때 우리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조부모 중심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집에서 한명이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하는 1인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인가족' 보다는 '1인가구'로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중심의 형태로 구성된 4인가구의 경우 2000년에 전체가구의 31.1%를 차지했지만 2005년에 27.0%, 2010년에 22.5%, 2015년에 18.8%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1인가구는 같은 기간에 15.5%에서 20.0%, 23.9%, 27.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인가구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 가족개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비자발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발적인 경우는 젊은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서 우선 찾을 수 있으며,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했거나,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이다. 비자발적인 경우로는 배우자의 사별 등과 같이 의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 형태이다.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자발적 1인가구는 독거노인으로 분리되면서 빈곤층의 대명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1인가구를 선택하는 자발적 사례는 젊은층에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젊은층이 증가하면서 이미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점점더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혼이 되기 때문에 다자녀를 갖기가 쉽지 않아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들어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문제가 1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의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따르면 '청소년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 혹은 가정내 폭력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는 사례가 도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1인가구의 비자발적인 노년층의 1인가구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공적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1인가구 노년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를 교회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게 결혼을 하는 만혼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는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업 차원에서는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한 영업전략을 내어놓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에 도달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회 또한 피상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이슈로 내세우며 다(多)자녀를 갖도록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뒷받침과 함께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아 봐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별 기획팀

"밥을 나눠야 마음을 보듬죠"

마을사람들, '밥 바라 밥'이벤트로 도움 필요한 1인가구 살피

▶ 본문듣기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9월 04일(토) 20:52

남녀노소
구분없이
혼자 밥 먹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피자 배고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불고기 피자
콩비네 피자
호두와아몬드 피자

대상 - 자취er, 기러기엄마아빠, 1인가구, 취준생, 청년, 기숙사생 등
선정 - 신청품에 충실한 100명
신청방법 - 링크 클릭

사랑함 나누는 [마을사람들]

"밥 한번 제대로 드시지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아무래도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귀찮아서'일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사람을 돕는 '마을사람들'대표 김주선 목사가 이유불문 식사를 거르는 1인 가족 100여 명에게 '밥'을 쏜다. 취준생, 대(휴)학생, 무직 장년층, 기러기 아빠, 65세 이상 어르신 등 1인 가족 100명에게 12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밥 바라 밥'이벤트다. 신청자에게는 이모티콘으로 12개의 도시락 쿠폰이 전달된다.

김 대표는 "성별 나이 거주형태 다 필요 없다"면서 "그냥 한달에 몇번 씩 지갑보면서 밥 값 걱정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신 200자 정도의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신청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다. '밥'을 나누며 '마음'을 보듬는 사역이 바로 '밥 바라 밥'인 셈이다.

김 대표는 "자기소개서로 신청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싱글맘이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할 때 지역의 여성공통체를 연계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자를 연결하며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밥 바라 밥' 사역은 단순한 먹거리 나눔이 아닌 힘들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다. 실제로 이번 이벤트에는 '아버지'들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홀로 거주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이들의 깊은 상심을 엿볼 수 있다"는 김 대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밥 바라 밥'은 '엄마의 밥상'을 부제로 한다. 상반기 한차례 '밥 바라 밥'을 진행한 김 대표는 "밥을 굶는 청년들이 37%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고, 엄마들이 가만 있을 수 없어 '엄마의 밥상'으로 이벤트를 했다"면서 당시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 했고 다행히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었다. '밥 바라 밥' 외에도 '피자 받고 어깨를 피자', '엄마 말씀하시길 과일, 야채 좀 먹어라' 등의 이벤트를 통해 1인 가정에게 피자과 야채주스를 나눴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은 공동체다. 김 대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뭉쳤다"면서 "아주 작은 도움으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작은 도움에 쓰러지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기에 작은 어깨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은숙 기자

가족, 노노부양-1인가구-후기노인 확대

[5월특집]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족 1)우리사회 가족의 변화

류재룡 목사

2022년 05월 04일(수) 08:45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를 맞이하여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오너스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가정과 결혼 그리고 부양이라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어 가족구조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보다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과 초고령 시대에서 다양한 세대가 있지만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노부양 가족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3세대에서 4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노노부양시대가 되었다. 노인인력개발원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노부양가구 현황(2017년)을 보면 노노부양하는 세대는 20만 2622세대로 2010년 12만 1767세대 대비 70%가 증가하였다. 나이별로 보면 60~70대 자녀가 80대 부양 12만 411세대 63.4%이고, 50대 자녀가 60~70대 부모 부양이 6만 6051세대(32.6%)이다.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함으로 노노부양 비율이 빨리 높아지고 있다. 50년 뒤인 2067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46.5%를 차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노부양에서 문제는 경제적 부양과 노노학대이다. 통계청(2019년)은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2017년)자료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69.7%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노노부양에서 또 다른 문제는 노노학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2016) 현황보고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에서 노-노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7.1%에서 43.7%로 늘어났다.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 연장과 자녀의 노년기 진입,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가구 형태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노인 된 자녀가 노인 된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부양'이 일상화되면서 이 가족들은 경제적 부양부담과 노노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부양부담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사역과 노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함께 돌봄'에 대한 목회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1인 가구급증이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노인1인 가구는 2000년 55만 4000명, 2019년 150만명, 2025년 206만 4000명으로 예상되어 매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1인 가구는 부부노인 및 자녀동거노인보다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많으며 요양보호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보건복지부, 2018). 이러한 노인1인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부양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지만 대부분 노인1인가구는 지지체계가 약하기에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노인1인 가구는 나이가 들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노인1인 가구가 되는 원인으로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는 노인1인 가구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만들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별 후에 대한 돌봄 등 목회전략이 필요하다

셋째는 후기노인의 급증이다. 보건사회연구원(2016)에 따르면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80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인구 비율이 2014년 2.6%(131만 6000명)에서 2026년 4.6%(239만 명), 2037년 7.7%(398만 7000명)로 확대되어 노인 복지정책의 주된 관심이 고령전기 중기 노인에서 고령후기 노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기노인이 많아지면서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간 후기노인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대비 60.4%로 비중이 커져 장사수요 증가에 따른 설치가 시급해 진다. 뿐만 아니라 후기노인들이 가지는 생애말기 정책인 호스피스 또는 웰다잉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많아질 것이다. 죽음을 앞둔 후기노인들은 대체로 영양관련 어려움, 자신의 신변을 잘 정리하고 싶은 욕구, 남은 시간 동안 가족관계 회복, 종교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족들은 휴식, 사별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죽음을 앞둔 후기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생애말기에 대한 웰다잉할 수 있는 사역과 장례와 장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황혼육아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 보육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2016)에 따르면 조부모 육아 참여율이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하면서 황혼육아 또한 증가 추세로 2012년 50%에서 2016년 63.8%로 증가하였다.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이는 신생아나 영아를 돌보는 데 조부모가 가장 믿을 만하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황혼육아는 주당 평균 양육시간은 42.53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명(22%)은 50시간 넘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비해 받는 양육비는 턱 없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손자녀를 돌봄이 보람이면서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황혼육아에 대한 성경적 유아 돌봄과 부모 자녀간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가족 신앙문화의 전수, 황혼육아로 인한 건강유지, 손자녀 교육에 대한 사역이 필요하다.

류재룡 목사(유성구노인복지관 관장)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교회, 공동 협력을”

[5월특집]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족 2)인구 절벽으로 이어지는 위기

손의성 교수

2022년 05월 11일(수) 07:32



손의성 교수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 (dead cross)이 처음 시작되었다. 통계청은 2019년 3월에 데드 크로스 시점인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입과 사망자 증가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러한 데드 크로스 현상과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이다. 인구절벽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통계청은 작년에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발표했는데, 인구절벽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추계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최근 2022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 65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에 있어서도 1970년 4.53명에서 크게 감소하여 2018년 이후 0.98명으로 1명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0.837명에서 2024년에는 0.70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추산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50년 뒤 인구가 3766만 명으로 141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급감은 고령화의 가속화를 촉발하였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로 OECD 국가(2020년)들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2070년에는 46.4%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고령화 속도인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보적으로 빨라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631만명(12.2%)에서 2070년 282만명(7.5%)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추계도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지나 2070년에는 1.21명까지 반등할 것을 가정했을 때의 전망이다.

인구절벽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생산연령인구에 있어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 7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70년에는 46.1%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그나마 줄어든 생산연령인구조차 중위연령의 증가로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8명에서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게 되고, 2070년에는 올해의 4배 이상 수준인 117명까지 증가하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지출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2세 이상으로 공적연금 고갈은 심각하게 되고, 총수입 증가율의 둔화와 복지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소득보장수준이 낮아 노후빈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인 14.8%의 3배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더군다나 작년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자료에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나 고령자의 1/3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의 또 다른 현상은 '지방소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농어촌이 인구절벽 시대에는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는 결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지방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시대에는 1인가구 및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1980년 4.8%, 2000년 15.5%, 2020년 31.7%로 급증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도 2021년 1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고령자통계'에서 독거노인의 노후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이 67.0%로 전체 고령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독거노인의 빈곤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1인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가족 수 및 자녀 수의 감소로 가족관계망이 취약해지고, 가정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주의의 팽배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 시대에는 가구 및 가족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확대가족 형태의 새로운 대안 가족 및 가구 개념이 제시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의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조금 낮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인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2월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인구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인구절벽 시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과 시민사회와 온 국민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인구절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교회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공동운명체로서 협력적인 대응을 해나갈 때 비로소 인구절벽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손의성 교수 / 배재대학교

동거도 결혼의 형태...출산은 결혼과 별개

가족의 개념 다양화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8월 12일(금) 14:01

[그림] 혼인인수 추이* (건)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2.03.17.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빈도시 해아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 (한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조사, 2022.05.20.~05.23)

[그림] 혼인 감소에 대한 인식** (%)



[그림] 결혼에 대한 인식

전체 기준**



성별/연령별 (%)**

구분		성별/연령별 (%)**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	남자	57	40	3
	여자	29	61	10
연령	18-29세	27	62	11
	30대	29	65	5
	40대	36	56	8
	50대	45	49	5
	60세 이상	63	33	4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빈도시 해아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 (한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원조사, 2022.05.20.~05.23)

**5점 척도 질문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 응답의 합이며,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하지 않는 게 좋다'와 '필요하면 안한다' 응답의 합임

[그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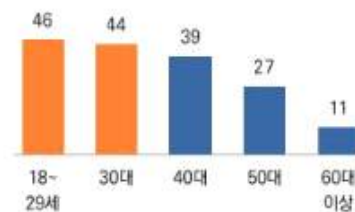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사, 2022.05.20 ~05.23)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전혀+별로'의 비율임

[그림]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 (%)



[그림] 동거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응답률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2.06.22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사, 2022.05.20 ~05.23)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민법에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혹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이 최근 시대의 흐름을 따라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결혼 제도의 붕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건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 대비 42%p나 감소한 수치이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인건수가 급감해 2019년 24만 건에서 2021년 19만 건으로 2년사이 21%p가 감소했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반면 여성과 2030 젊은이 60% 이상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으며 '결혼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미혼 여성 35%(미혼 남성은 59%로 여성보다 높다)만 긍정적인 답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 가구가 716만 6000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 2000 가구(7.9%p)

가 증가했는데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친족 가구	214,421	269,444	308,659	340,367	386,968	423,459	472,660
비친족 가구원	471,859	583,438	673,784	746,930	840,936	912,878	1,015,100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한 혼인으로 시작해 출산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제도 또한 흔들리고 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가 동의했고, 20대는 무려 84%가 (30대는 75%, 60대 이상 33%)찬성했다. 무엇보다 응답자의 48%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동거'도 결혼의 형태로 인정하는 움직임이다. 응답자의 52%가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고 답했고, 30%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응답의 경우 60대 이상은 11%만 동의한 반면 20대 46%, 30대는 44%로 나타나 세대별 '가족'의 인식차가 분명하며 특히 MZ세대들은 동거를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로 증가한 47만 2660가구로 조사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비친족 가구란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친구와 연인이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사실 혼·비혼·동거 등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

다. 이 조사에서는 20대가 특히 비혼 독신(53%), 비혼 동거(46.6%), 결혼 후 무자녀(52.5%)에 동의했고 10대 또한 비혼독신(47.7%), 이혼·재혼(45.0%), 무자녀(47.5%)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지난 8월 기획설문조사 '우리는 가족일까요-가족의 범위와 정상 가족에 대하여'(여론속의여론)에 따르면 여성과 20대,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자녀가족(여성 81%, 남성 70%) 미혼모가족(여성 63%, 남성 49%) 미혼부가족(여성 61%, 남성 46%) 동성(同性)가족(여성 36%, 남자 23%)을 정상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대 역시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정상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동성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응답에 5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10명 중 6명은 반려동물도 '나의 가족'이라고 답했다.

지금 세상은 사회가 규정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붕괴사이에서 기독교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교사회학자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비친족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 교수는 "그들의 선택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회의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신앙적인 가치나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1인가구, 비혼동거, 미혼모·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염려도 있다. 노치준 목사는 "지금의 변화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역기능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가족의 변화는 일종의 대안 가족으로 시간과 공간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정책 법제도 등 그 이면에서 일어날 차별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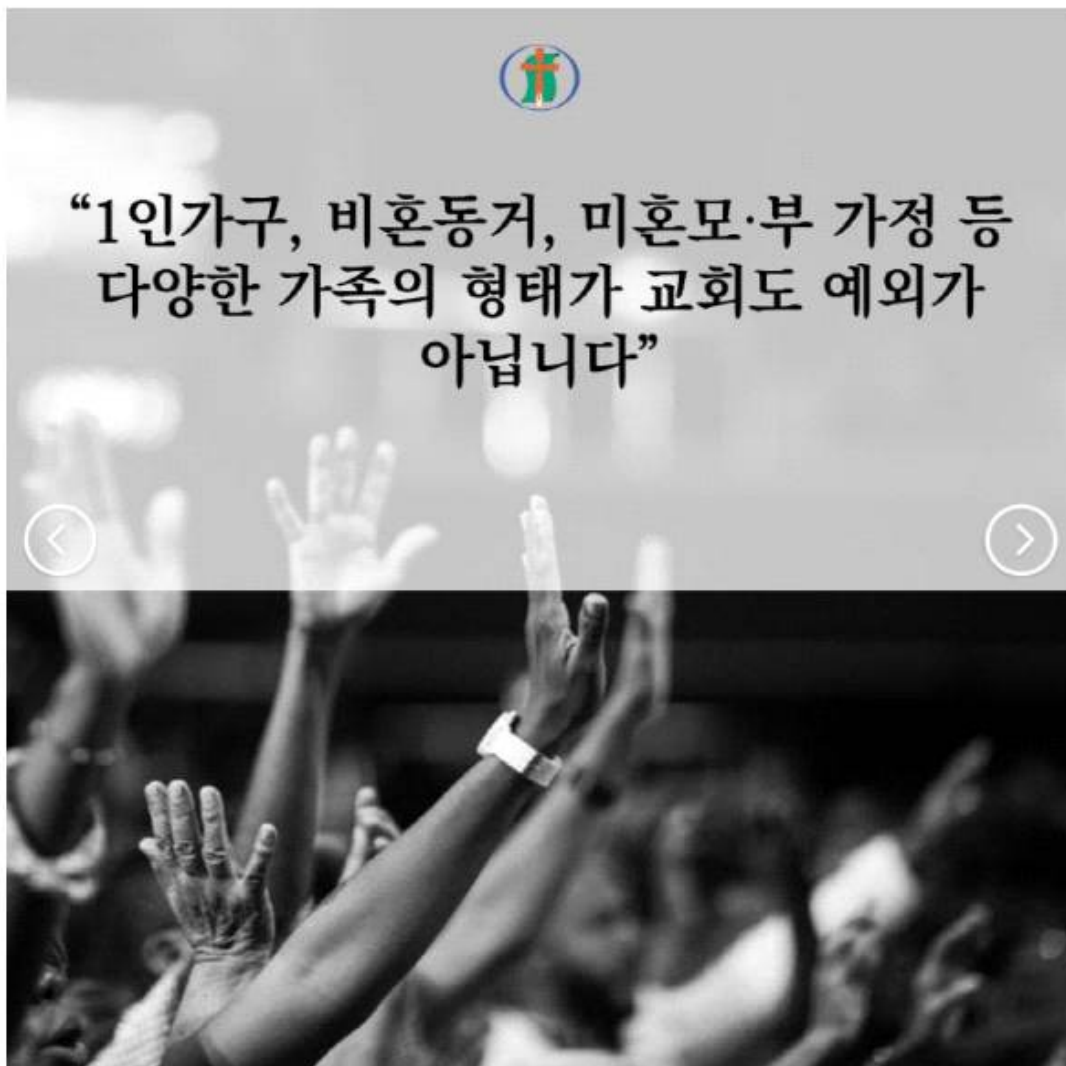
전체기사 | 뉴스 | 기획·특집 | 가정예배 | 칼럼·제언 | 연재 | 듣는뉴스 

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카드뉴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8월 15일(월) 16:25







1인 가구 700만 돌파

무자녀가족·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동성가족 등
'정상가족'으로 보는 인식도...



이번 카드뉴스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위클리 리포트155호
〈한국인의 결혼관 그리고 자녀관〉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선택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종교사회학자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인구위기의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

[현장칼럼] 기독교인이 '안물안궁'의 시대들 살아가는 법

박민선 이사장

2023년 03월 17일(금) 20:46



안물-안궁. '안 물어보았고, 안 궁금하다'의 줄인 말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형편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자꾸 쓸데없는 질문이나 말을 걸었을 때 이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은어다.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어린 세대에서 장난치듯 쓰이던 말인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아는, 꽤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필자는 더 나아가 어쩌면 이 표현이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인구와 복지 현실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조심스레 하게 된다.

필자는 현장에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을 섬기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복지와 보건영역에서 인구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20년 가까이 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을 24시간 보호하는 생활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급속한 인구변화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연구와 학술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관련 연구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 들어 이웃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도,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특히 몇 년 전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모임과 접촉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단절하는 경향은 더 커지고 있다.

영 역치스러운 주장은 아닌 것이 매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OECD Better Life Index)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 사회적 연결망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측정 대상 41개 국가 중 38위로 전체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와 대가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며 동방예의지국의 자부심을 가져왔던 우리나라가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웃과 가족과의 교류가 가장 단절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 결과가 당황스러운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품앗이와 상부상조의 전통은 옛날 말이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변화와 사회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의 보편화, 세대 간-연령 간 갈등이 있다.

작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천만 명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40.3%를 넘는 비율이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사망한 이후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 죽음인 고독사는 꾸준히 늘어 작년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한 해 3378명에 이른다. 하루에 9.3명 꼴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도움의 손길을 보낼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리라 예상된다.

이쯤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 기독교의 시작과 본질이 '연결'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시작이 창조주와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의 연결에서 출발하고 있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있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가장 큰 목표이자 기쁨이자 존재의 이유임에도 우리 사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고립과 단절'을 향해 달음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립을 추구하고 단절을 부추기는 사회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 욕구는 '연결되고픈 마음'이다. 이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독거어르신, 장애 여성, 노숙인, 기출청소년 누구나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이다. 나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 삶은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고, 이 험한 세상도 다시 한번 살아봄직한 곳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절을 추구하고 부추기는 흐름을 끊고 서로를 사랑과 관심의 끈으로 잇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역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고(故)김영길 한동대 총장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피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천국의) 신트로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박민선 이사장 / (사)한국한아름복지회

인구위기의 시대, 한국 교회의 역할

[현장칼럼] 증가하는 고독사와 교회의 사명

박민선 이사장

2023년 04월 14일(금) 08:05



현장에서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다 보면 대상자 어르신들의 성향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 어떤 어르신들은 집에 화초가 가득하다. 꽃과 식물을 길가에서 가져와 군데군데 심고 기르는 분들도 있다. 어떤 집은 문을 열면 강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반긴다. 강아지를 손녀 삼아 십 년째 데리고 사시는 90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사시는 집이다. 어떤 분들의 집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주로 잡지나 신문, 길에서 주워 온 빈 깡통 같은 쓰레기들이다. 이제 좀 버리시라고 말씀드려도 대꾸를 안 하신다. 어떤 분들의 집은 구경하기가 어렵다. 성격이 급해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로에 나와 계시기 때문이다. "어르신 건강히 잘 계시고 있지요?"하고 물으면 "그럼요~잘 가요"하고 급히 도시락을 챙겨 돌아가신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마음에 묻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기도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느새 이분들은 가족만큼이나 가깝고 깊은 마음의 정이 오가는 소중한 이가 된다.

우리 기관에서 매일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약 130명이다. 서울시 전체로는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을 지원받는 분들이 약 3만 2천 명 정도가 된다. 대부분 기초수급권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면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쉽지 않고 주변에 이분들을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경우이다.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은 딱하고 마음 아프지만 나라에서 이분들의 상황을 돌보아줄 여러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다행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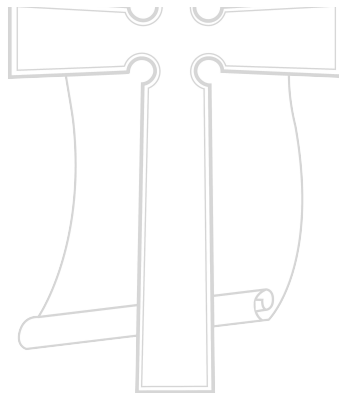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라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의 끝을 걸어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채로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지 만 72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2030 젊은이들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작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고독사 통계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5060 세대 남성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보통 쓸쓸한 죽음은 혼자 남은 노인 1인 가구에서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의 외면 속에서 홀로 남겨진 중장년 남성들과 청년들이 고독스럽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홀로 고독사하는 수가 매일 10명 꼴로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급격히 늘고 있는 홀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와 캠페

폐인을 진행하고 있다. 틈날 때마다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와 특수청소업체, 일선 경찰 등 관계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다. 이분들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고독사한 고인이 혼자 쓸쓸히 눈감으며 돌아보았을 마지막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유품을 정리하고 남겨진 현장을 청소하다 보면 군데군데 고독사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을 발견한다. 현관문 안팎으로 붙여진 연체료 고지서, 독촉장, 그리고 군데군데 널려 있는 약봉지가 마지막까지 고인을 괴롭혔을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지독한 절망감과 무력감이다. 30대에 고독사한 한 여성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가 광고 문자에 보낸 답장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증가하는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사회 각 계의 참여가 시급하다. 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중이고,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와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가장 소외된 곳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닐까. 교회의 적극적 관심이 지금 절실하다.

박민선 이사장 / (사)한국한아름복지회



불안(不安)의 시대, 혼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현장칼럼] 인구위기의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 4

박민선 이사장

2023년 06월 16일(금) 11:27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집까지 쫓아와 집 안을 훑쳐보기도 하고,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뒤지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등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행동들이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난다.

최근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범죄 피해율은 남성의 2.23배에 달하며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동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 2021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도 처음에는 다정한 연인관계로 시작했지만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 돌변해 혼자 사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취약점을 악용,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고 협박, 폭행, 갈취, 감금하는 사건들이 증가하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와 안전사고는 가까운 지인이나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주변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의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범죄는 은폐성, 암수성, 지속성, 상습성 등의 특성을 보여 피해자의 안전문제를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범죄사례들이 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의 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주거조건 중 주거의 안전성이 가격, 편리성이나 주거 평수, 노후도 등 다른 주거의 조건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여성들은 비싸고 낡고 좁더라도 지하철이 가깝고 대로변에 있어 치안유지가 잘되는 집을 구하느라 상대적으로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취사와 취침을 하는 1인 가구가 천만 명이 넘어섰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 가구 중 40퍼센트가 넘는 비율이다. 이들은 많은 경우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를 선택했고,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향후에 이 추세가 더 심화될 것이 당연한 시대에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 1인 가구의 대부분, 그리고 노인 1인 가구와 일부의 남성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상화된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1인 가구의 범죄피해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안심택배서비스, 안심보완관, 집과 골목 등 CCTV설치, 안심장비 지원 등등 유용한 서비스도 많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인천 등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불안함이 극도에 달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조차 꺼리는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 1인 가구들의 특성은 '자신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나 폭력과 무관한 행정적, 복지적 지원조차도 실제적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는지 확인해보면 대다수가 '여성 1인 가구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실제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나 지원 서비스 의향을 물으면 대부분이 거절한다는 경찰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의 연장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불신, 사회가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언제 어디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기도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안전 정도는 우리 사회 안전의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이다. 젊은 나이가 들었든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빈곤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옆에 보호하고 함께 하는 누군가가 없이 독처한다는 자체가 안전에 있어서는 취약함이다. 가장 연약해도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안전 선진국이다. 혼자여도 안전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 이유다. 가장 약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입 안에서 놀고 사자와 소가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는 천국(이사야 11장 6~8절)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우리 사회의 빠른 인구변화와 이와 함께 나타나는 우리 사회 인구절벽, 고독사 증가, 갈등 증폭, 범죄와 불안의 증가라는 위기들을 복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접하는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영역과 현장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동역과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민선 이사장 / (사)한국한아름복지회

1인 가구 위한 사역 필요

[사설]

한국기독교공보

2024년 01월 15일(월) 10:27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2177만 가구 중 1인가구가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 수준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는 2015년 27.2%에서 28.6%, 30.2%, 33.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 및 가족 형태의 변화는 소득,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022년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연간 소득의 45% 수준이다. 부족한 재정은 자연스럽게 주거의 질을 떨어뜨린다. 1인 가구 중에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이 각각 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시원의 경우 이제는 고시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이 아닌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나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숙박시설이 된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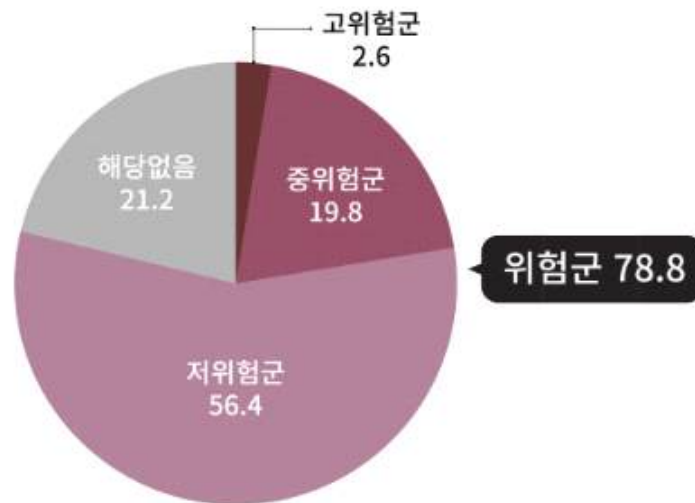
이외에도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문제, 외로움과 고독감의 문제 등은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교회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응답하고, 독거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사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인가구의 특성인 독립성을 잘 존중해주면서 동시에 만남과 나눔, 배움을 위한 장을 펼쳐 외로움의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주일만 오고가는 주변인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사역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교회들은 새겨들어야 할 때다.

1인 가구 79%가 '고독사 위험군', 관심 절실

김동현 기자 kdhyeon@pckworld.com

2024년 02월 05일(월) 12:43



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 예방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2.6%가 고독사 '고위험군', 19.8%가 '중위험군', 56.4%가 '저위험군'으로 나타나 약 79%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1.2%에 그쳤다. 이 수치는 △이혼 실직 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해 산출한 결과다.

연구진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심층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 63.4%와 중위험군 19.3%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 뿐인 것으로 나타나 영양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고위험군은 95% 이상, 중위험군은 약 70% 전후로 집계돼 위기의 순간 이들의 버팀목이 돼 줄 사회적 지지망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인 세대는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08년(600만 3551세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며 2023년에는 993만 5600세대에 달해 15년 사이 약 66%가 급증했다. 고독사의 발생 건수 역시 지난 2017년(2412건)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조사년도인 2021년에는 3378건까지 늘어나 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도어 박민선 이사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에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며 교회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우선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고독사 위험에 빠진 1인 가구들을 1차적으로 파악해 지원하고, 이후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인 가구는 고독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고독사의 발생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교회는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김을 실천하는 특별한 공동체"라며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현 기자



전체기사 | 뉴스 | 기획·특집 | 가정예배 | 칼럼·제언 | 연재 | 듣는뉴스 

1인 가구 79%, 고독사 위험군!

[카드뉴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2월 05일(월) 16:07

